

박인환과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신의 의미 연구

전병준*

1. 서론
2. 신에 대한 호소와 희망의 역설적 가능성
 - 박인환 시에 나타난 신의 의미
3. 자기 성찰과 현실 인식의 계기
 - 김수영 시에 나타난 신의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박인환과 김수영의 시를, 신적인 것을 다룬 시를 중심으로 살핀 논문이다. 이들은 모두 해방 이후의 혼란과 자유를 겪었고, 전쟁이라는 극단을 체험하였다. 비록 궁극적인 시적 관심에서는 상이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던 까닭에 1950년대 시사의 전개 과정에서 이들을 비교하여 살피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단순히 비난과 폄하의 관계로 치부해서는 이들의 시학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950년대 시사 자체도 기술될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이들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관점의 하나로 신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시를 살핀 것이다.

박인환에게 신, 혹은 신적인 것이 시에 도입되는 과정은 전적으로 전쟁

* BK21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미래인재육성사업단 연구교수

과 관련된다.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그는 인간적인 것뿐 아니라 신적인 것에 대해서도 절망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이 필요했을 터이니 비록 비관적인 전망이라 하더라도 신적인 것을 매개로 그러한 전망을 가지게 된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하겠다. 김수영에게 신적인 것이란 인간적인 것을 반성적으로 사유하게 해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신적인 것이라는 절대적 타자를 통해 그는 좀 더 치열한 자기 성찰에 이르게 되니,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자기가 발 딛고 있는 세계에 대해 절망하였으나 오히려 자신과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타자를 상정함으로써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리라 추측하는 것이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김수영에게 신, 혹은 신적인 것이란 타자를 통해 자신을 깨치게 하는 중요한 자극과 계기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박인환과 김수영을 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폈다. 이러한 관점이 195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현대시사의 전개 과정에서 박인환과 김수영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유효한 관점의 하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이나 시야는 박인환과 김수영을 함께 연구하는 데 유일한 것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러한 연구가 축적됨으로써 1950년대의 한국시사가 새로이 쓰일 수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 시론적으로 제기한 관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박인환과 김수영의 시를 살필 수 있는 적절한 관점과 방법론을 제기하는 것이 추후의 과제라 하겠다.

주제어 : 박인환, 김수영, 1950년대, 신

1. 서론

박인환과 김수영은 195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오래도록 주목받아 왔으나 이들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달랐던 것이 사실이다. 지지와 동시에

비판이 있지만 김수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행해진 것과 달리 박인환에 대해서는 학계와 비평계에서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¹⁾ 여기에는 널리 알려진 대로 박인환에 대한 김수영의 평가가 적지 않게 작용하였던바, 감상적이고 낭만적이며 대중적이라는 편견이 박인환 시에 대한 감상과 연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²⁾ 그러나 박인환의 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그간의 오해가 어느 정도 불식되며 그의 시가 해방과 전쟁 이후 한국적 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응전이었음을 밝혀내고 있는 추세이다.³⁾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최

-
- 1) 이러한 사정은 이들에 대한 비평적 접근이 하나의 단행본 형식으로 나오기 시작한 시기를 살피는 것으로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김수영에 대한 연구 모음이 단행본의 형식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81년에 처음으로 발간되기 시작한 『김수영 전집』과 비슷한 시기였던 1983년이었고, 그 이후 김수영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를 모은 『김수영 다시 읽기』가 나온 것은 2000년이였다. 박인환의 경우는 몇몇 전집이 없지 않았고 그에 대한 인상이 모음이 없지 않았으나 비교적 충실한 서지 자료에 입각한 전집이 나온 것이 문승묵과 맹문재의 작업에 의한 2006년과 2008년이였다. 그리고 박인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및 비평 작업이 묶인 것은 2011년에 이르러서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황동규 편, 『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1983.

김승희 편, 『김수영 다시 읽기』, 프레스21, 2000.

문승묵 편, 『박인환 전집-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예옥, 2006.

맹문재 편, 『박인환 깊이 읽기』, 서정시학, 2006.

맹문재 편, 『박인환 전집』, 실천문학사, 2008.

오문석 편, 『박인환-위대한 반항과 우울한 실존』, 글누림, 2011.

- 2) 김수영이 박인환과의 관계에서 가지게 된 대타의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 한기는 그것을 “격렬한 복합감정, 양가감정의 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한기, 「박인환과 김수영, 혹은 문학사적 짝패의 초기 동행여정」, 김명인·임홍배 편, 『살아있는 김수영』, 창비, 2005, 265-278쪽 참조.

- 3) 김수영과 관련을 지속적으로 밝힌 한명희의 작업과 박인환의 현실 인식과 인민민주주의와의 친연성을 밝힌 박현수의 논의, 그리고 산문에 나타난 미국의 특성을 살핀 방민호의 논의, 그리고 우울과 알레고리적 특성을 밝힌 곽명숙과 박슬기의 논의가 참조될 수 있다.

한명희, 「박인환과 김수영, 그 영향의 수수관계」, 『어문론총』 제43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321-349쪽.

_____, 「1950년대 모더니즘시의 서정성」, 『한국시학연구』 제16집, 한국시학회, 2006, 25-47쪽.

방민호, 「박인환 산문에 나타난 미국」,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9집, 한국현대문

근의 연구 경향을 받아들여 그의 시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을 김수영의 시와 비교해봄으로써 새로운 관점의 모색이 가능한지 살피고자 한다.

박인환을 김수영과 비교하여 주목할 때, 문제시되는 부분은 역시 1950년대와 관련된 지점이다. 이 시기는 전쟁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거니와, 관심사는 이들이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극복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의용군으로 끌려갔다 포로수용소에 수감되는 김수영의 삶만큼 박인환의 그것 또한 비극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인바,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서 숨어 있었던 체험과 종군 기자로서 전쟁을 겪은 체험은 그의 삶과 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의 시적 여정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시를 살피는 작업에서는 필수적으로 전쟁 체험을 의미 있게 다루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인환의 시를 살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독 신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점이다. 아시아에 대한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며 광범위한 경계를 넘나들며 현실적이며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던 박인환이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신, 혹은 신성한 것에 대한 감정을 자주 표현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진단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한편 김수영의 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심과 자유와 사랑 등이 자주 논의되어 왔으나 그의 초기 시뿐 아니라 시작 전반과 산문에 걸쳐 신에 대한 언급이 자주 발견되는 까닭에 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박인환과 비교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신 혹은 신적이고 신성한 것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박인환과 김수영의

학회, 2006, 413-448쪽.

박현수, 「전후 비극적 전망의 시적 성취」, 『국제어문』 제37집, 국제어문학회, 2006, 127-161쪽.

곽명숙, 「1950년대 모더니즘의 묵시록적 우울」, 『정신문화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59-79쪽.

박슬기, 「박인환 시에서의 우울과 시간의식」, 『한국시학연구』 제33집, 한국시학회, 2012, 219-243쪽.

시적 대응이 어떠했나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시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해 내고자 하는 것이다.

2. 신에 대한 호소와 희망의 역설적 가능성

- 박인환 시에 나타난 신의 의미

박인환에게 신이라는 소재는 전쟁과 더불어 찾아온다. 해방 이후의 혼란하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모더니즘 문학을 지향하던 그에게 전쟁은 눈앞에 닥쳐온 비극이었고, 실제로 전쟁을 체험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참담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터이니, 이러한 사정이 그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게끔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다른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극단이었으니, 박인환의 시에 나타난 신, 혹은 신적인 것에 대한 상상은 현실로부터의 초월을 보장해주는 매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불가능성에 대한 한탄을 토로하는 대상이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 가깝다.⁴⁾

오늘 나는 모든 욕망과
사물에 작별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친한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과거는 무수한 내일에
잠이 들었습니다.
불행한 신
어디서나 나와 함께 사는
불행한 신
당신은 나와 단둘이서

4) 전쟁기에 쓰인 박인환 시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본 논문의 관점과 관련하여 신의 문제에 집중한 논의로는 앞의 연구사 검토에서 언급한 곽명숙과 박현수의 것이 참조될 만하다.

얼굴을 비벼 대고 비밀을 터놓고
 오해나
 인간의 체험이나
 고절(孤絶)된 의식에
 후회치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결속되었습니다.
 황제의 신하처럼 우리는 죽음을 약속합니다.
 지금 저 광장의 전주(電柱)처럼 우리는 존재됩니다.
 실 새 없이 내 귀에 울려오는 것은
 불행한 신 당신이 부르시는 폭풍입니다.
 그러나 허망한 천지 사이를
 내가 있고 엄연히 주검이 가로놓이고
 불행한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최후의 안정을 즐깁니다.

- 「불행한 신」 전문⁵⁾

타계하기 직전인 1955년에 간행된 『선시집』에 실려 있는 위의 시는 죽음과 신에 대한 박인환의 생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논지와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인 죽음을 통해 존재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재하고 관장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신에 대한 수식어로 “불행한”이라는 어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전쟁의 체험이 배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위의 시는 자신이 경험한 비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한층 더 관심 깊게 살펴봐야 하리라 생각된다.

“모든 욕망과 / 사물에 작별하였”고, 그리하여 “더욱 친한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이 시의 도입부는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는 결국 죽음과

5) 박인환 시 인용은 다음의 책을 따르도록 한다.
 맹문재 편, 『박인환 전집』, 실천문화사, 2008.

다른 것이 아님을 강렬하게 표명한다.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인 욕망을 잃어버린 까닭에 사물과도 작별하게 되고, 또한 그런 까닭에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고의 연쇄 과정이다. “과거는 무수한 내일에 / 잠이 들었습니다”라는 구절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암담한 전망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신을 “불행한 신”이라 부른 데는 이러한 사정이 개재한다고 하겠다. 욕망이 사라진 삶은 죽음과 다르지 않고, 그리하여 결국 미래란 어디에도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불행한 신은 이제 신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비벼 대고 비밀을 터놓”을 정도로 가까워진 위치를 점하게 된다. 불행한 신은 오히려 신의 지위를 잃어버렸으니 오히려 인간보다 못한 존재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결속되었습니다”라는 구절과 “황제의 신하처럼 우리는 죽음을 약속합니다”라는 구절은 불행한 신과 인간이 사멸의 위험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지위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저 묘지에서 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파괴된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은 바다에서 연기처럼 꺼진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내부에서 사멸된 것은 무엇입니까.

1년이 끝나고 그다음에 시작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났어 간 나의 친우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슬픔 대신에 나에게 죽음을 주시오.

인간을 대신하여 세상을 풍설로 뒤덮어 주시오.

건물과 창백한 묘지 있던 자리에

꽃이 피지 않도록.

하루의 1년의 전쟁의 추억은

검은 신이여

그것은 당신의 주제일 것입니다.

- 「검은 신이여」 전문

죽음의 모티프가 한층 더 강화되는 위의 시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 실제성과 구체성이다. “묘지”와 “파괴된 건물”이 불러일으키는 몰락과 퇴락의 기운은 “전쟁이 났어 간 나의 친구”라는 구절에 이르면 절정에 이른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분위기가 결국엔 전쟁이 야기한 것이라는 판단이 여기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연에서 다시 한번 “전쟁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모든 것의 원인으로 전쟁을 지목하고 있음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묘지에서 우는 사람”과 “파괴된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모두 전쟁의 참화가 빚어낸 고통스러운 결과이다. 전쟁의 참혹함은 이러한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체념에 가까운 상태를 초래한다. 시의 전반부를 지배하는 의문형은 “검은 신”을 향한 것이지만 오히려 화자의 참담함을 드러내는 데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대답이 있을 수 없는 물음이 이 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비극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슬픔 대신에 죽음을 주시오” 그리고 “인간을 대신하여 세상을 풍설로 뒤덮어 주시오”라는 그 다음 구절은 한층의 희망도 남아 있지 않는 절대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웅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 연에서 전쟁이 “당신의 주제일 것”이라는 말은 신에 대한 분노일 뿐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비극에 대한 고통스러운 절규에 가깝다. 모

든 것을 주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신에게 자신의 고통과 비극을 토로함으로써 그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과 비극을 허용한 신에게 절망감을 내비칠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원인으로 신을 지목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이 나온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희망도 없는 암담한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할 어떤 가능성도 부재한 정황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사랑처럼 무한히 슬픈
회상의 긴 계곡
그랜드 쇼처럼 인간의 운명이 허물어지고
검은 연기여 올라라
검은 환영이여 살아라.

안개 내린 시야에
신부(新婦)의 베일인가 가늘은 생명의 연속이
최후의 송가(頌歌)와
불안한 발걸음에 맞추어
어디로인가
황폐한 토지의 외부로 떠나가는데
울음으로써 죽음을 대치하는
수없는 악기들은
고요한 이 계곡에서 더욱 서럽다.

강기슭에서 기약할 것 없이 쓰러지는
하루만의 인생
화려한 욕망
여권(旅券)은 산산이 찢어지고
낙엽처럼 길 위에 떨어지는
캘린더의 향수를 안고

자전거의 소녀여 나와 오늘을 살자.

군인이 피워 물던
물부리와 검은 연기의 인상과
위기에 가득 찬 세계의 변경(邊境)
이 회상의 긴 계곡 속에서도
열을 지어 죽음의 비탈을 지나는
서럽고 또한 환상에 속은
어리석은 영원한 순교자.
우리들.

- 「회상의 긴 계곡」 전문

1951년 경향신문에 발표된 위의 시는 전쟁이라는 시간적 배경 아래 있는 만큼 전쟁과 별개로 논의될 수 없는 작품이다. 박인환은 종군기자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였을 터이니 그러한 체험이 이 작품에 반영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아름답고 사랑처럼 무한히 슬픈/ 회상의 긴 계곡”이라는 도입부가 이 시의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거니와 자연의 조화에 의해 만들어진 계곡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한히 슬프다고 표현하는 데는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전쟁의 비극이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바로 이어지는 시행에서 “그랜드 쇼처럼 인간의 운명이 허물어”진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추측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울음으로써 죽음을 대치하는/ 수없는 악기들”에 대한 묘사는 이 시의 분위기를 한층 더 암담하게 만든다. 더구나 이 악기들의 울음은 “황폐한 토지의 외부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가늘은 생명의 연속”에 부치는 “최후의 송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암담함 속에서 “하루만의 인생”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권은 산산이 찢어”진 것으로 비유된다. 살아남은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저버릴 수 없어 “자전거의 소녀여 나와 오늘을 살자”고 말하지만, 이러한 독백에 가까운 한탄은 오히려 더

욱 참담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암담함과 참담함의 연속일 뿐인 이 시에서 좀 더 관심을 끄는 것은 마지막 연이다. “군인”이라는 시어가 이 시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순교자”로 명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순교자는 “서럽고 또한 환상에 속은” 자들이긴 하지만 “위기에 가득 찬 세계의 변경”을 “열을 지어 죽음의 비탈을 지나는” 자들이기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삶과 죽음은 인간 존재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건이다. 경험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것이기에 불안을 야기하고 인간의 지식을 압도하는 사건이지만, 이러한 사건에 의해 구체적인 삶을 사는 인간은 초월에 대한 상상과 의욕을 가지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박인환은 이 시를 통해 시대가 겪은 전쟁을 통해 비극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초월에 대한 욕망이 내재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1951년의 서적

나는 피로한 몸으로 백설을 밟고 가면서

이 암흑의 세대를 휩쓰는

또 하나의 전율이

어디 있는가를 탐지하였다.

오래도록 인간의 힘으로 인간인 때문에

위기에 봉착된 인간의 최후를

공산주의의 심연에서 구출코자

현대의 이방인 자유의 용사는

세계의 한촌 한국에서 죽는다

스코틀랜드에서 애인과 작별한 R. 지미 군

잔 다르크의 전기를 쓴 페르디난트 씨

태평양과 밀림과 여러 호소의 질병과 싸우고

바탄과 코레히도르의 준열의 신화를

자랑하던 톱 미첩 군
이들은 한 사람이 아니다. 신의 제단에서
인류만의 과감한 행동과 분노로
사랑도 기도도 없이
무명고지 또는 무명계곡에서 죽었다.

(…)

지금 싸움은 계속된다
서적은 불타오른다.
그러나 서적과 인상의 풍경이여
너의 구원(久遠)한 이야기와 표정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F. 루스벨트 씨가 죽고
더글러스 맥아더가 육지에 오를 때
정의의 불을 토하던
여러 함정(艦艇)과 기총과 태평양의 파도는 잔잔하였다.
이러한 시간과 역사는
또다시 자유 인간이 참으로 보장될 때
반복될 것이다.

비참한 인류의
새로운 미주리호에의 과정이여
나의 서적과 풍경은
내 생명을 건 싸움 속에 있다.

- 「서적과 풍경」 부분

이 시는 서적을 소재로 하고 있는 까닭에 김수영의 시와 비교하여 살펴
기에 좋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신, 혹은 신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
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인용하지 않은 이 시 앞부분의
“지금은 살육의 시대”라는 구절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1951년의 서

적”과 “위기에 봉착된 인간의 최후를/ 공산주의의 심연에서 구출코자”와 같은 구절에서 이 시가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와 잔 다르크의 전기 작가 등을 추모하며 이들이 “신의 제단에서/ 인류만의 과감한 행동과 분노”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음을 상기하는 부분은 전쟁의 참극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신성한 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어떤 한 종교가 아니라 보편적인 종교 일반의 비유인 신의 제단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이들을 시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전쟁을 비롯한 인간의 비극에서 절망과 비참을 겪더라도 결국 이들을 위로하는 행동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종교적 행동을 통해 마침내 비극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시의 마지막에서 “나의 서적과 풍경은/ 내 생명을 건 싸움 속에 있다”는 구절은 전쟁과 같은 “시간과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임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정적 전망 속에서도 신성함을 통한 극복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고 완전한 어떤 것을 상상하고 동경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론적 숙명에 가까운 일이다. 한계와 약점이 뚜렷한 까닭에 완전무결한 어떤 존재를 상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무한과 완전에 대한 생각은 극단적인 한계에 봉착하였을 때 더 강렬해진다. 존재의 유한함과 무능함에 대한 자각이 무한한 것에 대한 생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1950년대 박인환의 시에는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 까닭에 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그의 시작 전체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관건의 하나가 된다. 박인환이 체험한 전쟁은 비극과 참담 그 자체여서 그로부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럼에도 신성한 것에 대한 의욕이 있었던 까닭에 혹독한 현실을 극복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으리라 추정하는 것이 전혀 부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3. 자기 성찰과 현실 인식의 계기

- 김수영 시에 나타난 신의 의미

김수영 시의 주제는 그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초기 시에서 설움을, 후기 시에서 자유와 사랑을 추출하는가 하면, 정직과 양심과 윤리 등을 김수영 시의 주제로 주목한 것이다.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며 시적 여정을 시작하였으나 마침내는 타자와 역사에 대한 사랑으로 관심이 확대된다는 것, 이것이 기존 논의가 대체로 동의하는 김수영 시의 전개 과정이다.⁶⁾

기존 연구는 김수영의 시에 대해 광범위한 측면에서 주목하여 그 시적 주제를 어느 정도 규명하였으나 아직까지 신, 혹은 신적이거나 신성한 것에 대해 논의한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박인환과의 관련 아래 김수영을 살피려는 본 논문이 신을 소재나 주제로 한 작품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소재와 주제가 한국현대사의 격변을 거치며 시인으로 등장하여 활동하는 이들의 문학을 파악하는 데 유효한 관점을 제공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해방과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한국현대사의 질곡이 그들의 삶과 문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 가운데서 전쟁이라는 한계상황이 결정적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극단적인 한계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다른 상상을 하도록 자극

6) 김수영 시에 나타난 설움에 관한 연구로는 한수영과 박수연과 강계숙의 논의가, 사랑에 관한 연구로는 유성호와 강연호의 것이 참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한수영, 「일상성을 중심으로 본 김수영 시의 사유와 방법(1)」, 『작가연구5』, 새미, 1998, 50-54쪽.

유성호, 「타자 긍정을 통해 '사랑'에 이르는 도정」, 『작가연구』 제5호, 1998 상반기, 216-217쪽.

박수연, 「김수영 시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1999, 68-116쪽.

강연호, 「김수영 시에 나타난 내면의식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34-60쪽.

강계숙, 「1960년대 한국시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의 형상과 시적 이념」,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8.

했을 터이니, 그러한 과정에서 초월적 존재로서 신이 상정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신적인 것이라는 소재와 주제를 중심으로 김수영의 시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수의 작품이 이러한 범주로 포섭되거나, 초기에 해당되는 「웃음」(1948)뿐 아니라 후기의 작품인 「VOGUE야」(1967)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산문까지 그 범위를 넓히면 이러한 경향은 좀 더 확대된다. 특히 산문에서 확인되는 신에 대한 언급은 해방과 전쟁과 독재와 혁명과 쿠데타와 군사 정권을 거치는 한국현대사의 격변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월적 존재에 대한 요청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⁷⁾

전쟁이라는 한계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인 「조국에 돌아오신 상병포로 동지들에게」(1953)에서 김수영은 전쟁의 참화를 겪은 이들에 대한 감정을 토로하는 가운데 신적인 것에 대해 언급한다.

그것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여정이었다
가족과 애인과 그리고 또 하나
부실한 처를 버리고
포로수용소로 오려고 집을 버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포로수용소보다 더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자유가 살고 있는 영원한 길을
찾아
나와 나의 벗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현대의 천당을 찾아
나온 것이다

(…)

「나는 이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 나는 자유를 위하여
출발하고 포로수용소에서
끝을 맺은

7) 이에 대해서는 줄고, 「김수영 시에 나타난 신적인 것의 의미」, 『우리어문연구』 제47집, 우리어문학회, 2013, 401-423쪽 참조.

나의 생명과 진실에 대하여
 아무 뉘우침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를 연구하기 위하여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의 두
 꺼운 책장을 들춰볼 필요가 없다
 꽃같이 사랑하는 무수한 동지들과 함께
 꽃같은 밥을 먹었고
 꽃같은 옷을 입었고
 꽃같은 정성을 지니고
 대한민국의 꽃을 이마 위에 동여매고 싸우고 싸우고 싸워왔다

그것이 너무나 순진한 일이었기에 잠을 깨어 일어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신성한 착감(錯感)조차 느
 껴보는 것이었다
 정말 내가 포로수용소를 탈출하여 나오려고
 무수한 동물적 기도(企圖)를 한 것은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용서하여 주시오
 포로수용소가 너무나 자유의 천당이었기 때문이다
 노파심으로 만일을 염려하여 말해 두는 건데
 이것은 촛毫(寸毫)의 풍자미(諷刺味)도 역설도 불쌍한 발악도 청년
 다운 광기도 섞여 있는 말이 아닐 것이다
 - 「조국에 돌아오신 상병포로(傷病捕虜) 동지들에게」(1953) 부분⁸⁾

이 작품은 김수영의 시적 주제가 자유에 있음에 주목하는 일련의 연구
 에서 자주 인용되었거니와,⁹⁾ 그와 더불어 본 논문의 주제인 신적인 것과

8) 김수영 시의 인용은 다음의 책을 따르도록 한다.

김수영, 『김수영 전집1·시』, 민음사, 2003.

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박수연, 「국가, 개인, 설움, 속도」, 김명인·임홍배 엮음, 『살아있는 김수영』, 창
 비, 2005, 63-66쪽.

최동호, 「한국 현대시와 자유에 대한 시적 상상」, 『한국시학연구』 제17호, 한국
 시학회, 2006, 147-149쪽.

도 관련성이 있어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의용군으로 끌려갔다 탈출과 체포를 거치며 포로수용소에 수감되는 과정을 회고하며 이제 북쪽에서 송환되는 반공포로에 대한 공감을 표명하는 이 작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자신의 이력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의 여정”임과 동시에 “나와 나의 벗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현대의 천당을 찾아 나온 것”이라 토로하는 부분이다. 의용군 신분에서는 포로가 되는 것이 그나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터이니 포로수용소를 천당으로 표현한 것이 이해되지 못할 바가 아니다. 전쟁의 와중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김수영에게는 포로수용소가 그 어떤 곳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지옥과도 같은 전쟁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천당을 상상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인해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천당을 상상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비유에 그칠지라도 좀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신, 혹은 신적인 것에 대한 동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나 여기에 중요한 자극이 된 것이 천당으로 대변되는 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 인용 부분에서 좀 더 두드러진다. 자유를 얻기 위해 “대한민국의 꽃을 이마 우에 동여매고 싸우고 싸우고 싸워왔다”는 김수영의 진술은 포로수용소 안에서의 생활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해주거니와 그러한 고통스러운 싸움의 과정 끝에 “나는 예수 크리스트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신성한 착감조차 느껴보는 것”이라고 진술하기 때문이다. 예수에 비추어 자신의 포로수용소 체험을 회고하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서의 생활이 고통스러웠음을 방증함과 동시에 신적인 존재인 예수를 통해 그 고통이 언젠가는 극복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김수영이 전쟁이라는 한계 상황을 신적인 것이라는 초월적 계기를 통해 상상적으로나마 극복해보고자 했다는 것이다.

김수영에게 전쟁과 포로수용소 체험이 큰 정신적 외상으로 작용했음은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위의 작품이나 미완의 소설 「의용군」을 발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표한 「여자」(1963)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1965)를 통해 포로수용소 안의 생활이 서러웠거나 간호 업무를 돕는 자신이 놀림감이 되었음을 고백한 데서 전쟁이라는 극단이 그에게 얼마만큼의 폭력으로 작용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폭력은 개인의 힘으로 좀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김수영은 전쟁이라는 현실을 그 현장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가공할 폭력으로부터 어떻게든 탈출하고자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신성한 것에 대한 동경과 관심이었던 점은 유심히 살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나는 젊은 사나이의 그 눈초리를 보았다
흔들리는 자동차 속에서 창밖의 풍경이 흔들리듯
그의 가장 깊은 영혼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바람도 불지 않는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듯 나의 마음에서 수없이
떨어져내리는 휴식의 열매
뒷걸음치는 것은 분격(憤激)인가 조소인가 회한인가
무수한 궤도여

위안이 되지 않는 시를 쓰는 시인을 건져주기 전에
신이여
그 사나이의 눈초리를 보셨나요
잊어버려야 할 그 눈초리를

끓은 밧줄 밑에 뒹구는
구렁이가 악몽이 될 수 있겠나요

무수한 공허 밑에 살찌는 공허보다
더 무서운 악몽이 있나요
 시내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셨나요
그것보다도 흔적이 더 없는 내어버린 자아도

하하! 우주의 비밀을
아니
비밀은 비밀을 먹는 것인가요
하하하.....

- 「영교일(靈交日)」 전문

“젊은 사나이”의 “눈초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위의 시는 우선 그 제목부터 관심을 끈다. “영교일(靈交日)”이라는 말은 영혼이 교류하는 날을 의미할 터이니 여기서 영적인 것, 혹은 인간적인 것을 초월한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성찰의 계기나 과정에서 신성한 것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함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우연히 마주친 한 사나이의 눈초리에서 “그의 가장 깊은 영혼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며 이에서 촉발되어 “나의 마음에서 수없이 떨어져내리는 휴식의 열매”를 진술하고, 거기에 덧붙여 “분격”과 “조소”와 “회한”을 토로하는 과정은 외부의 자극을 통해 자기 성찰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 다르지 않다. 그 성찰의 결과가 세상에 대한 분노뿐 아니라 풍자와 같은 조소와 더불어 지난 시절에 대한 회한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찰의 결과가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다층적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위안이 되지 않는 시를 쓰는 시인을 건져주기 전에” “그 사나이의 눈초리를 보”았는지 묻는 대상이 “신”이라는 사실은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자기 성찰의 출발점이 되는 젊

은이의 눈초리를 보았느냐고 물음으로써 판단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대상이 신이라는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연에서도 계속해서 신을 향해서 묻는 구조는 계속되거나 “굶은 밧줄 밑에 뒹구는 구렁이”나 “무수한 공허 밑에 살찌는 공허”와 같은 구절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비유적 언사이다. 그런 사고와 발언의 연쇄 과정 끝에 “그것보다도 흔적이 더 없는 내어버린 자아”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자기 비하에 가까운 자기의식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마지막 연 또한 자학에 가까운 자기 성찰이라는 측면에서 살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신이라는 절대적 타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으리라는 것이다.¹⁰⁾

심연은 나의 붓끝에서 퍼져가고
 나는 멀리 세계의 노예들을 바라본다
 진개(塵芥)와 분노를 꽃으로 마구 바꿀 수 있는 나날
 그러나 심연보다도 더 무서운 자기 상실에 꽃을 피우는 것은 신이고

나는 오늘도 누구에게든 얹매여 살아야 한다

도야지우리에 새가 날고
 국화꽃은 밤이면 더 한층 아름답게 이슬에 젖는데
 올 겨울에도 산 위의 초라한 나무들을 뿌리만 간신히 남기고 살살
 이 갈라갈 동네아이들……
 손도 안 씻고
 쥐똥도 제멋대로 내버려두고
 닭에는 발등을 물린 채
 나의 속제는 미소이다

10) 신이 존재의 타자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 대해서는, 레비나스, 『신, 죽음 그리고 시간』, 김도형, 문성원, 손영창 역, 그린비, 2013, 178-186쪽 참조.

밤과 낮을 건너서 도회의 저편에
영영 저물어 사라져버린 미소이다

- 「꽃」 전문

“심연보다도 더 무서운 자기 상실에 꽃을 피우는 것은 신”이라는 진술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온갖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초월적 존재를 상정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이 시가 쓰인 1957년이면 김수영이 마포로 거처를 옮겨 어느 정도 안정을 얻기 시작하던 때이지만 그럼에도 그의 생활이 단숨에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심연보다도 더 무서운 자기 상실”이라는 구절도 그러하지만 “오늘도 누구에게든 얹매여 살아야 한다”는 구절이 이러한 예상을 정당화해 준다. 전쟁과 그 이후의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생활의 안정을 찾기 위해 고투한 김수영에게 자신이 당면한 현실적 조건이란 좀체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여겨졌을 터이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는 어느 정도 복구되었으나 그럼에도 세상은 “진개와 분노”로 가득하다. 이러한 토양에서는 어떠한 생명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꽃이 피어난다. 어떠한 생명도 불가능할 것만 같은 황폐한 대지에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꽃이란 기적과도 같이 생각되었을 것이다. 자신은 “멀리 노예들을 바라보며” 노예나 마찬가지로 살고 있으나 자연의 신비는 꽃을 피운다는 사실에서 김수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터이다. 고통의 연대를 살고 있는 자신은 고통의 무게 속에서 새로운 삶의 활로를 찾기 위해 애쓰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관심도 없는 “동네아이들”은 “산 위의 초라한 나무들을 뿌리만 간신히 남기고 살살이 갈라”간다. 시의 마지막에 이르러 “밤과 낮을 건너서 도회의 저편에/ 영영 저물어 사라져버린 미소”를 “나의 숙제”라 말하는 데는 자신의 세대가 겪은 비극과 어린 아이들의 순진무구함이 엮여 있고, 동시에 자연의 신비에 대한 경탄이 담겨 있다. 자신은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미소를 찾는 것이 아마 김수영의 이후 과제였을 것이다.

김수영의 관심은 후진적이고 낙후된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는 것이었고, 그런 까닭에 그의 시적 지향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전쟁 이후의 폐허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점쳐 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가운데 하나가 신적인 것에 대한 동경과 관심이었던다는 사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4. 결론

박인환과 김수영의 시를, 신적인 것을 다룬 시를 중심으로 살폈다. 이들은 모두 해방 이후의 혼란과 자유를 겪었고, 전쟁이라는 극단을 체험하였다. 비록 궁극적인 시적 관심에서는 상이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던 까닭에 1950년대 시사의 전개 과정에서 이들을 비교하여 살피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단순히 비난과 폄하의 관계로 치부해서는 이들의 시학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950년대 시사 자체도 기술될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이들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관점의 하나로 신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시를 살핀 것이다.

박인환에게 신, 혹은 신적인 것이 시에 도입되는 과정은 전적으로 전쟁과 관련된다.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그는 인간적인 것뿐 아니라 신적인 것에 대해서도 절망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이 필요했을 터이니 비록 비관적인 전망이라 하더라도 신적인 것을 매개로 그러한 전망을 가지게 된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하겠다. 김수영에게 신적인 것이란 인간적인 것을 반성적으로 사유하게 해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신적인 것이라는 절대적 타자를 통해 그는 좀 더 치열한 자기 성찰에 이르게 되니,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자기가 발 딛고 있는 세계에 대해 절망하였으나 오히려 자신과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타자를 상정함으로

써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리라 추측하는 것이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김수영에게 신, 혹은 신적인 것이란 타자를 통해 자신을 깨치게 하는 중요한 자극과 계기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박인환과 김수영을 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폈다. 이러한 관점이 195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현대시사의 전개 과정에서 박인환과 김수영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유효한 관점의 하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이나 시야는 박인환과 김수영을 함께 연구하는 데 유일한 것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러한 연구가 축적됨으로써 1950년대의 한국시사가 새로이 쓰일 수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 시론적으로 제기한 관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박인환과 김수영의 시를 살필 수 있는 적절한 관점과 방법론을 제기하는 것이 추후의 과제라 하겠다.

1. 1차 자료

- 김수영, 『김수영 전집1·시』, 민음사, 2003.
맹문재 편, 『박인환 전집』, 실천문학사, 2008.

2. 2차 자료

- 강계숙, 「1960년대 한국시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의 형상과 시적 이념」,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8.
강연호, 「김수영 시에 나타난 내면의식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2
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곽명숙, 「1950년대 모더니즘의 묵시록적 우울」, 『정신문화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김승희 편, 『김수영 다시 읽기』, 프레스21, 2000.
맹문재 편, 『박인환 깊이 읽기』, 서정시학, 2006.
문승묵 편, 『박인환 전집-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예옥, 2006.
박수연, 「김수영 시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1999.
_____, 「국가, 개인, 설움, 속도」, 김명인·임홍배 엮음, 『살아있는 김수
영』, 창비, 2005.
박슬기, 「박인환 시에서의 우울과 시간의식」, 『한국시학연구』 제33집, 한
국시학회, 2012.
박현수, 「전후 비극적 전망의 시적 성취」, 『국제어문』 제37집, 국제어문
학회, 2006.
방민호, 「박인환 산문에 나타난 미국」,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9집, 한국
현대문학회, 2006.
오문석 편, 『박인환-위대한 반항과 우울한 실존』, 글누림, 2011.
유성호, 「타자 긍정을 통해 ‘사랑’에 이르는 도정」, 『작가연구』 제5호,
1998 상반기.

- 전병준, 「김수영 시에 나타난 신적인 것의 의미」, 『우리어문연구』 제47집, 우리어문학회, 2013.
- 최동호, 「한국 현대시와 자유에 대한 시적 상상」, 『한국시학연구』 제17호, 한국시학회, 2006.
- 한기, 「박인환과 김수영, 혹은 문학사적 실패의 초기 동행여정」, 김명인 · 임홍배 편, 『살아있는 김수영』, 창비, 2005.
- 한명희, 「박인환과 김수영, 그 영향의 수수관계」, 『어문론총』 제43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 _____, 「1950년대 모더니즘시의 서정성」, 『한국시학연구』 제16집, 한국시학회, 2006.
- 한수영, 「일상성을 중심으로 본 김수영 시의 사유와 방법(1)」, 『작가연구5』, 새미, 1998.
- 황동규 편, 『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1983.
- 레비나스, 『신, 죽음 그리고 시간』, 김도형, 문성원, 손영창 역, 그린비, 2013.

〈Abstract〉

The Meaning of God in Poems of In-whan Park and Su-young Kim

Byeongjun Jeon
(Korea University)

This thesis tried to clarify the meaning of God in poems of In-whan Park and Su-young Kim which is thought to be the key concept to understand their poetic core under the 1950's. The process of God into the poems of Park is wholly related to Korean War. Although he despaired about the human as well as the divine, he managed to endure taking hope. The role of God in Kim's poems is that it functioned as the other which made him to come to recognize himself. It made him the dialectics of the finite and the infinite, and finally helped the realizational thought.

Keywords : In-whan Park, Su-young Kim, the 1950's, God

논문접수일 : 11.15 / 심사기간 : 11.16 - 12.5 / 게재확정일 : 12.10
